

남북련석회의는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인 민족적회합

장 응 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민족의 단결을 안아오셨던 주체37(1948)년 4월 남북련석회의는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대단결을 실현한 역사적인 민족적회합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련석회의는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역사적인 민족적회합이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9권 322페이지)

4월 남북련석회의가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인 민족적회합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발기와 지도밑에 북과 남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국통일문제를 토의한 역사상 첫 대민족회의였기때문이다.

북과 남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국통일문제를 토의하는것은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였다.

해방직후 나라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는 남조선인민들의 자주권을 총칼로 유린말살하면서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고 획책하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단선단정》조작책동으로 하여 민족분열이 고정화될 위험이 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애국심을 대동맥으로, 원동력으로 하여 전민족을 단합시키고 통일애국의 길을 공동으로 개척해나가는 실제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련석회의를 발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개별적인사람들이 련석회의에 참가할수 있도록 다심한 은정과 크나큰 아량을 베풀어주시였으며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초대장준비로부터 회의날자에 이르기까지 회의준비전과정을 지도해주시였으며 반공민족주의자들의 과거도 백지화하는 뜨거운 믿음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아량과 믿음에 고무된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지어 《반공》을 필생의 념원으로 삼아온 완고한 민족주의거두들과 외세에 아부하던 사람들까지도 련석회의에 참가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7(1948)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였다.

남북련석회의에는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북 15개, 남 40개, 해외 1개) 1천여만의 성원을 대표하는 695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련석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 《북조선정치정세》에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보고에서 우선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민주개혁을 실시하여 경제와 문화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북반부인민들이 걷고있는 길이 우리 조국이 자주

독립국가로 발전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미제가 강행하려는 남조선단독선거를 저지파탄시키고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통일적중앙정부를 세우는것이 우리 민족앞에 나선 최대의 정치적과업이라는것을 뚜렷이 밝히시였다. 그리고 국토가 동강나고 민족이 둘로 갈라질수 있는 위협에 직면하여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조국통일이라는 하나의 숭고한 위업을 위하여 사상과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굳게 뭉쳐 싸워야 한다는 진리를 모든 회의참가자들에게 안겨주시였다.

통일애국의 일념에 넘친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는 모든 대표들의 심금을 울리였고 그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일치한 찬동을 불러일으켰다.

련석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조선정치정세에 대한 결정서》와 《전조선동포에게 격함》을 채택하고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파탄시키는 투쟁에 온 겨레가 한결같이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와 지도밑에 련석회의에 뒤이어 열린 남북정당, 사회단체지도자들의 협의회에서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외국군대를 동시에 철거시킨 다음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전조선정치회의를 열고 조선인민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통일적민주주의임시정부를 세울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그리고 1 000여만명의 당원, 맹원을 망라하고있는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반대하는 남조선단독선거는 절대로 민족의 의사를 반영할수 없으며 따라서 그런 《선거》로 조작되는 어떠한 《단독정부》도 조선인민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금 준철히 선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는 실로 참가자들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고 정견과 신앙이 서로 달랐으나 오직 통일애국의 기치밑에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통일정부를 세우려는 애국의 일념으로 총집결한 북남 각계각층 대표들의 력사적인 첫 대민족회의였다.

미국작가인 존 간서까지도 남북련석회의에 《리승만을 제외한 남조선에 있는 우수한 인물들이 거의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가하였다.》라고 하면서 회의에 《이만큼 다수의 남조선대표들이 출석하였다는것은 비록 사정이 어떻든지간에 조국통일에 대한 그들의 본능이 얼마나 뿌리깊은것인가를 보여주는것》이라고 실토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처럼 남북련석회의가 지난날 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던 극우익민주주의자들까지도 련공, 련북으로 돌려세우는 대민족회의로 되게 하심으로써 민족대단결실현에서 근본적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시였다.

4월남북련석회의가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인 민족적회합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련석회의가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반민족적분렬세력에 대한 애국적통일력량의 압도적우세를 확고히 보장하는 현실적계기로 되였기때문이다.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통일전선을 실현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당시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 좌익과 우익, 중간세력의 공동행동전선을 형성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것은 그들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정견, 신앙을 가지고있다는데도 있었지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놓고 서로 마주앉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의사를 소통할수 있는 실

천적계기를 마련할수 없었던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실태를 깊이 헤아리시고 역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가 극소수의 반동적정당, 단체를 제외한 좌우익, 중간 정당, 단체들과 극우익민족주의자들까지 다 참가하는 광폭적인 회합으로 되게 하시는 한편 그들모두가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합작과 연합을 실현하는 실천적계기로 되도록 하는데 최대의 관심을 돌리시였다.

역사적인 4월련석회의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구를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고 그들이 통일전선의 기치아래 공산주의자들과 굳게 단결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 온 겨레를 한품에 안으시는 넓은 도량, 고결한 인품에 감복한 그들은 《반공》으로부터 련공애국의 길에 나섰다.

남북련석회의를 마치고 서울에 나간 김구와 김규식은 《평양방문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남북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며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서는 우리 민족도 세계의 어느 우수한 민족과 같이 주의와 당파를 초월하여서 단결할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행동으로 증명한것이다.》라고 언명하였다.

그리고 한국독립당, 《민족자주련맹》을 비롯한 80여개 정당, 단체들을 망라하여 구국통일전선을 지향하는 《통일독립촉진회》를 결성하고 《5.10단선》을 반대하며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4월련석회의는 극우익을 비롯한 모든 계열의 민족주의자들을 한결같이 통일의 기치밑에 련공합작으로 이끌어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통일전선을 이루고 연합과 공동행동의 실천적단계를 열어놓은 역사적인 민족대회합이였다.

민족의 영구분렬의 위험이 조성된 것처럼 엄혹한 시기에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대단결을 실현한 역사적인 회합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고야말것이다.